

닭의 연령, 일조시간, 외부기후 조건과, 영양결핍 등 약조건 극복을 위한 자연적 순응이기 때문이다.

즉, 닭고기 생산의 기본요소 중 사료와 연료가격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힘든 요소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병아리 생산비, 노동력 등 기타 요소들은 서로간의 이해와 고통을 감수한다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지금의 역경극복을 닭 환우의 섭리에서 얻는 지혜를 갖는다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계**

“

우리 모두 지금의 역경극복을 닭 환우의 섭리에서 얻는 지혜를 갖는다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채란업계 대응방안

# 사료업계, 생산자들과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김 종 선 광주전남지회장

지난해 사료가격이 6% 인상되었으며, 금년에도 이미 2차례나 인상되는 등 3차례에 걸쳐 정말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르는 사료가격을 보고 대부분의 양계인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 IMF, 금년 초의 HPAI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대 사건으로 앞으로 어떻게 업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지 막막한 심정이다.

지난해 필자는 전 양계업계를 대변하여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사료 원료가격의 상승요인이 상쇄되어 그동안 올랐던 사료가격을



내려야만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공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당시 그나마 조그만 목소리로 인해 사료가격 상승을 40여일간 지연시켜 농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현재 선박과 곡물가격이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는 사료공장도 무조건 적인 상승보다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모색하면서 약자인 사양가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난가는 물론 양계산물 가격도 사료가격 인상분 만큼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피해는 결국 양계인들만 보게 된다. 사료가격은 과거에 너무나 많은 거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를 하나씩 건고 양계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전 축종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국내의 축산은 사료업계와 함께 붕괴되어 버린다. 전 축종과 연계하여 부당하게 오르고 있는 사료가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너무나 힘이 없는 우리 양계인들이여! 한 목소리를 갖고 함께 이 난국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의지를 모아준다면 사활을 걸고 필자가 앞장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양계**

## 새란업계 대응방안

# 경영분석을 통한 철저한 농장관리 이루어져야

전 병 훈 대경농장 대표

2003년 12월말 우리 삶의 기반인 양계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다.

다행히도 계란시세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반전되었지만 반면에 사료가격 또한 폭등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가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란 생산비를 분석해 보면 사료비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단백질 수준을 사료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사료에 함유되어있는 조단백질이나 아미노산 함량을 기준으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닭

